

조용사의 의미해석에 관한 연구*

이완일(순천향대)

1. 머리말

조용사라는 용어는 “명사를 대신하는 작용기능을 갖는 어떤 형식이나 표현들이 있다”는 견해에서 유래한다. 명사(N)와 명사구(NP)간의 차이가 전통문법에서 분명치 않았고 이론을 기술하는 통사론 분야의 최근 연구에서도 분명치 않기 때문에 조용사라는 용어는 대부분 학자에 의해 명사를 대신하는 것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사용된다.

다음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조용사Anaphora)는 자연언어에서 두 개의 상이한 용법을 갖는다:

- (1) a. Ich bin froh über die Nachricht; ich sah *ihn* vor einigen Tagen.
b. Ich bin mit Hans bekannt; ich sah *ihn* vor einigen Tagen.
- (2) a. *Dies* ist die Tochter von Herrn Karl.
b. Otto fing eine Katze und *die* biß ihn.

(1a)의 인칭대명사 *ihn*과 (2a)의 지시대명사 *dies*는 화자와 청자간 사전 공통의 정보 하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지적하거나 바라보면서 말할 때의 예로서 이것을 지시적(deiktisch) 용법이라 하며, (1b)와 (2b)의 인칭대명사 *ihn*과 지시대명사 *die*는 문장 내의 (고유)대명사나 부정명사구의 의미와 관련될 때의 예로서 이것을 조용적(anaphorisch) 용법이라 한다.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 외에 조용사로 사용되는 것으로 재귀대명사, 관계대명사, 소유대명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조용사의 의미해석은 전통적으로 “조용사는 언어 내적 혹은 언어 외적 문맥에 있어서 자기 이외의 어떤 것, 대개는 문장 내의 명사구나 또는 대상과의 관련기능이라

* 본 논문은 2000년도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학술연구조성비의 일반연구과제로 지원 받아 수행하였음.

볼 수 있다.”¹⁾ (1b)에서 인칭대명사 *ihn*은 특정 조건 하에서 *Hans*라는 언어표현과 관련된다.

변형학자들에 의한 인칭대명사의 의미분석은 대명사화라는 하나의 변형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동일성(Identität)의 적절한 조건 하에서 완전명사구 중 하나를 축소 내지 보충형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조용사의미론의 한 중요한 임무는 문장 내에 한 개 이상의 명사구(NP)가 나타날 때 그들이 동일한 실체를 가리키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3) Verkauf mir *deinen* Wagen, wenn du *ihn* nicht brauchst!

(4) Herr Hans läßt mich immer wieder *ihn/sich* helfen.

(3)에서 *ihn*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려면 *ihn*의 전건(Antezedens)을 밝혀야 한다. (4)의 이탤릭체의 조용사 *ihn* 혹은 *sich*가 본 문장에서 가능한가 어떤가, 만일 가능하다면 각각의 조용사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

본 작업의 연구목적은 조용사를 인칭대명사, 재귀대명사 그리고 소유대명사에 국한시켜서 (4)문장처럼 표층구조상 접속사가 나타나지 않는 독일어 단문에서 명사구간의 공지시관계, 즉 조용사의 의미해석을 성분통어(C-Command)와 결속이론('Bindung' Theorie)에 의거하여 분석·고찰하는 데 있다.

2. 우위관계

초기 변형문법에서 대부분 대명사화의 통사자료는 우위관계에 의해 분석되었다. 우위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²⁾

1) T. Wassow(1979): "Problems with Pronouns in Transformational Grammatik", in Syntax and Semantic 10, S. 202.

2) S. Soames/D. Perlmutter(1979): Syntactic Argumentation and the Structure of

(5) 우위관계(Primat-Relation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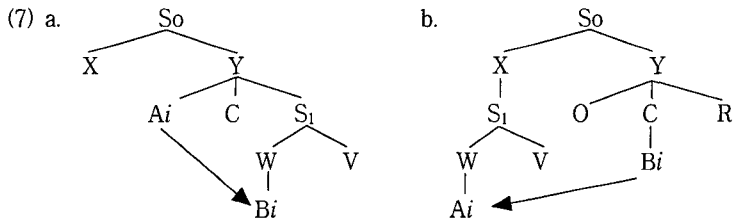
A가 B를 통어하거나 어휘배열의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의 순서에서 A가 B보다 선행하면 성분 A는 성분 B에 대해 우위관계에 있다.

즉 우위관계는 통어관계와 선행관계를 갖는다. A가 B를 통어하는 동시에 B보다 선행하면 두 개의 우위관계에 있으며, 둘 중 하나만 적용되면 한 개의 우위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통어관계는 역행대명사화의 적용조건이 되는 반면에 선행관계는 순행대명사화의 적용조건이 된다. 통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³⁾

(6) 통어('Command')

A를 관할하는 모든 S-범주가 역시 B를 관할할 때만 성분 A는 성분 B를 통어한다.

이 정의를 도표로 고찰하자:



대부분 복합문에서의 역행대명사화는 이 정의에 의해 분석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8) a. *Fritz_i* behauptet, daß *er_i* recht habe.
- b. **Er_i* behauptet, daß *Fritz_i* recht habe.

English, S 217-218.

3) S. Soames/D. Perlmutter(1979): ebnda, S. 214.

(9) a. Daß *Hans_i* dumm ist, betrübt *ihn_i* nicht.

b. Daß *er_i* dumm ist, betrübt *Hans_i* nicht.

(7a)에서 A_i 는 B_i 를 통어하는 동시에 선행하므로 반드시 B_i 가 대명사가 되어야 하며, (7b)에서는 B_i 가 A_i 를 통어하므로 A_i 가 대명사가 될 수 있고 또한 A_i 가 B_i 를 선행하므로 B_i 도 대명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8)문장은 (7a)의 구조를 가지므로 순행대명사화만 가능하다. 따라서 (8a)에서 *er*는 *Fritz*와 동일지표를 갖고 있으므로 *Fritz*와 동일인으로 의미해석이 가능하고, (8b)에서는 동일인의 해석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9)문장은 (7b)의 구조이므로 순행-과 역행대명사화가 동시에 가능하므로 *er*의 의미해석은 양쪽으로 가능하다.

성분통어이론이 등장하기까지 복합문에 등장하는 인칭대명사의 통사론과 의미론 현상의 많은 자료가 우위관계에 의해 그 분석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이 관계의 많은 체계적 반대 예가 Lakoff에 의해 지적되었다:⁴⁾

(10) a. Für *seinen* Sohn will *Paul* ein Spielzeug kaufen.

b. In *seiner* Nähe sah *Otto* eine schwarze Schlange.

(11) a. *Für *Pauls* Sohn will *er* ein Spielzeug kaufen.

b. *In *Ottos* Nähe sah *er* eine schwarze Schlange.

(10)의 문장들은 우위관계에 의거하여 그 문법성을 설명할 수 없다. 대명사가 자기의 전건을 선행하지만 통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sein-*의 의미는 문장 밖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1)의 문장들은 전건이 대명사를 선행할 때는 항상 순행대명사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의 반대 예를 제공한다. Postal(1971)은 대명사화규칙을 전치규칙보다 먼저 제안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대명사화현상을 규칙적용의 순서배열에 의해 해결하는

4) G. Lakoff(1976): "Pronouns and Reference", in: Syntax and Semantic. Vol. 7, S 278-286.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전치성분에서 순행대명사화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음의 (12b)에서 엄밀동일성의 조건을 갖는다면 *sie*는 *Luise*와 공지시관계로 의미해석을 할 수 있다:⁵⁾

- (12) a. *In Ottos Bild von *Luise* fand *sie* einen Fleck.
- b. In Ottos Bild von *Luise* reitet *sie* ein Pferd.

그러나 (12a-b)의 전치규칙 적용 전의 문장에서는 똑같이 공지시가 불가능하다:

- (13) a. **Sie* fand einen Fleck in Ottos Bild von *Luise*.
- b. **Sie* reitet ein Pferd in Ottos Bild von *Luise*.

둘째, 전치성분의 경우 규칙적용의 순서해결에 또 다른 반대 예는 주어의 공지시선택과 목적어의 공지시선택에서 볼 수 있다. 즉 대명사가 주어인 (11)에서 순행대명사화가 불가능했지만 대명사가 목적어일 경우에 순행대명사화일 때도 공지시해석은 가능하다:

- (14) a. In *Ottos* Bett hörte ich *ihn* laut weinen.
- b. Für *Annas* neues Auto lieh ich *ihr* 1000 Mark.

(14) 문장의 근원인 (15) 문장에서는 공지시 해석은 불가능하다:

- (15) a. *Ich hörte *ihn* in *Ottos* Bett laut weinen.
- b. *Ich lieh *ihr* 1000 Mark für *Annas* neues Auto.

그러므로 전치성분을 지닌 문장에서 규칙의 적용순서에 의한 해결방안은 순행대명사화의 공지시 수용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구분할 수 없

5) Jackendoff. R.(1975): "On Belief-contents", in: Linguistic Inquiry. Vol. 6, S 59-65.

다. 이것은 이 문장들의 표층구조에 공지시선택을 결정하는 얼마간의 구조적 자질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einhart(1976)는 통어를 성분통어로 대치시켜 대명사 의미해석에 관한 이론을 확립시켰다.

3. 성분통어와 자료분석

Reinhart에 의하면 공지시에 대한 구조적 제약은 주어진 명사구의 통사적 영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영역은 주어진 명사구가 다른 명사구의 지시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사적 수형도의 부분이다. 어떤 명사구에 지시지표가 할당되면 그의 영역 안에 있는 다른 명사구도 그와 동일한 지시를 할당받기 위해 대명사로 표시되어야 한다. 대명사로 표시되지 않는 명사구는 의무적으로 그 주어진 명사구의 지시와 상이한 지시를 할당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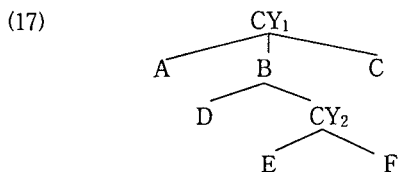
성분통어는 대명사 의미해석을 다루고, 또한 통사적 영역을 규정하는 관계로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⁶⁾

(16) 성분통어('C-Command')

교점 A를 직접 관할하는 분지교점('branchin' Knoten)이 또한 교점 B를 관할한다면 A는 B를 성분통어한다.

통어관계와 성분통어관계간의 차이는 전자가 S-교점을 언급하는 반면에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모든 분지교점이 성분통어관계의 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 다음 수형도에서:

6) Reinhart. T(1976): "Definite NP Anaphora and C-Command Domain", in: Linguistic Inquiry Vol 12, S. 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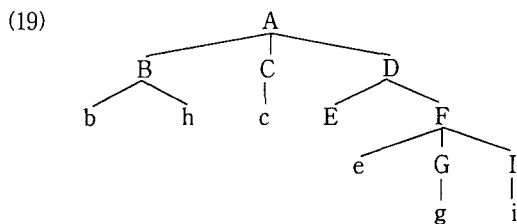


A교점은 모든 다른 교점을 통어하기도 하고 성분통어하기도 한다. 이것은 C교점에도 적용된다. D교점은 C교점을 통어하지만 성분통어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D를 관할하는 첫 번째 분지교점, 즉 B가 C를 관할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분통어관계는 어떤 주어진 교점의 통사적 영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⁷⁾

(18) A교점의 성분통어 영역은 A에 의해 성분통어되는 모든 교점들로만 구성된다.

통어와는 달리 성분통어는 어떤 교점에서나 그 영역 안에 있는 상대방을 관할하기를 요구한다. 즉 교점들은 자기 자신을 성분통어한다.

이제 (16)과 (18)의 정의를 다음 수형도에 의거해서 살펴보자:



b교점은 b(자기 자신), h 그리고 B를 성분통어한다. 따라서 b의 영역은 이들 교점으로만, 즉 B성분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h에 대해 정의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C는 A에 관할되므로 A의 모든 교점을 성분통어한다. g 혹은 I의 영역은 F에 관할되는 성분들이다. e는 D에 관할되므로 g와 I를 성분통

7) Reinhart. T.(1983): Anaphora and Semantic Interpretation, S. 19.

어한다.

(19)의 관찰에서 교점들의 배열상의 순서는 문장에서 공지시관계를 결정하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에서 b가 c보다 앞서 있고, e가 c보다 뒤에 있지만 b와 e는 모두 c에 의해 관찰된다. 그 이유는 이들이 c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이다. (19)의 정의된 영역은 모두 성분이며 문장축위의 규칙은 이 영역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즉 이 규칙은 적어도 2개의 교점 중 하나가 다른 것의 영역 안에 있을 경우에만 작용할 수 있다. 공지시제약의 경우 이것은 2개 NP의 공지시선택은 이들 중 하나가 다른 것의 영역에 있을 때만 제약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다른 경우에는 그들의 공지시해석은 그들 중 어떤 것이 대명사이든 관계 없이 자유롭다. 2개의 NP 중 하나가 다른 것의 영역에 있으면 영역핵 NP는 자기 영역 내에 있는 NP보다 '우위'에 있으며 이것은 공지시의 경우 영역핵이 자기 영역에 있는 NP를 대명사화시킬 수 있다. 즉 영역핵의 영역에 있는 공지시 NP는 대명사에 의해 조용적으로 표시된다. 이 일반화는 다음의 제약으로 진술된다:⁸⁾

(20) 공지시제약

NP_a와 NP_b가 인칭, 수 그리고 성에서 일치하고 동일한 지시를 할당받으면 A는 자기 영역 안에 있는 B를 대명사화시켜야 한다. a와 b가 서로의 영역 밖에 있으면 이들의 공지시해석은 어떤 것이 대명사가 되든 자유롭다.

이제 성분통어개념과 공지시제약에 의거해서 다음 문장들의 대명사 의미를 분석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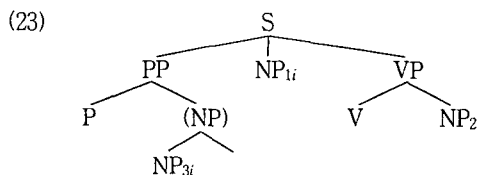
- (21) a. In *ihrer* Küche verbringt *Anna* die fröhlichste Zeit.
 b. Für *seine* Frau würde *Karl* sein eigenes Leben opfern.
- (22) a. *In *Annas* Küche verbringt *sie* die fröhlichste Zeit.
 b. *Für *Karls* Frau würde *er* sein eigenes Leben opfern.

8) Reinhart. T.(1983): Anaphora and Semantic Interpretation, S. 33.

문제는 (21)의 *ihr/sein*이 *Anna/Karl*과 동일인으로 의미해석이 가능한가, 그리고 (22)의 *sie/er*가 *Anna/Karl*과 동일인으로의 해석 가능성의 여부다. (21)에서는 동일인으로 해석할 수 있고, (22)에서는 동일인의 해석이 불가능하다. 즉 (22)의 *sie*와 *er*의 의미는 문장 안의 *Anna*나 *Karl*이 아니라 문장 밖의 어떤 사람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통어개념에 의하면 대명사가 자기의 전건을 선행하지만 통어하지 않기 때문에 (21)의 공지시해석은 봉쇄될 것이고, 전건이 대명사를 선행할 때는 항상 '순행대명사화'가 가능한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22)는 공지시 해석이 마땅히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21)과 (22)만을 고려할 때 대명사화규칙을 전치규칙 전에 적용해야 한다는 유혹을 받을지 모른다. 그러나 공지시 문제를 변형규칙 적용의 순서배열에 의거해서 해결하는 데는 많은 모순이 드러남을 앞에서 언급했다. 이런 현상을 이제 성분통어개념을 토대로 분석해 보자.

이 반대 예는 전형적으로 (23) 유형의 구조에서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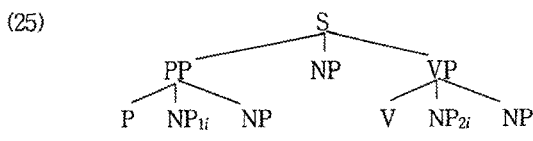


우선 NP_1 과 PP 에 있는 NP_3 의 영역관계를 검토하자. (23)수형도에서 NP_1 은 NP_3 을 성분통어한다. 따라서 성분통어의 영역정의에 의거 NP_3 는 NP_1 의 세력범위에 있다. 달리 말해서 S 의 모든 교점은 주어를 선행하든 후행하든 주어의 영역 속에 있다. 그러므로 (20)의 공지시제약은 NP_3 가 NP_1 과 동일 지시가 되도록 조용사로 바뀔 것을 요구한다.

성분-통어관계의 두 번째 반대예는 (24)이다:

- (24) a. Für *Karls* neuen Anzug will ich *ihm* kein Geld bezahlen.
 b. Für *sein* neuen Anzug will ich *Karl* kein Geld bezahlen.

(24)의 문장들은 (23)과 같은 구조에서 주어의 위치를 가지면 허용되지 않는 순행 대명사화가 목적어를 가지면 허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24) 문장의 수형도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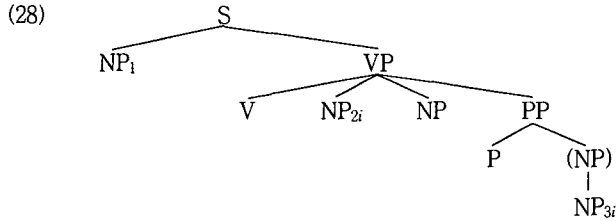


공지시와 관련하여 주어와 목적어간의 구분은 선행-통어제약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만 성분통어제약에 대해서는 이런 비대칭은 주어의 영역이 전체 문장을 포함하는 반면에 목적어의 영역은 VP만을 포함한다는 사실의 예견된 결과이다. (25)수형도에서 NP₁의 영역은 분지교점 PP이고, NP₂의 영역은 분지교점 VP이므로 NP₁과 NP₂는 서로를 성분통어하지 못하므로 NP₁과 NP₂가 인칭, 수, 성이 일치하고 동일한 지표를 할당받았다면 이들 중 아무나 조용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24)문장의 *ihm*과 *sein*은 모두 *Karl*과 동일인으로 의미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어진 NP가 목적어라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다른 NP와 자유로운 공지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26) a. *Ich will *ihm* kein Geld für *Karls* neuen Anzug bezahlen.
 b. *Karl zeigte *ihr* seine neuesten Bilder in *Annas* Küche.
 (27) a. Ich will *Karl* kein Geld für *seinen* neuen Anzug bezahlen.
 b. Karl zeigte *Anna* seine neuesten Bilder in *ihrer* Küche.

(26)에서 *ihm/ihr*는 *Karl/Anna*와 성, 수, 인칭이 일치하고 동일지표를 할당받는다 할지라도 동일인으로 의미해석이 될 수 없다. 그러나 (27)에서는 동일인의 의미해석이 가능하다. (26)과 (27)의 수형도는 다음과 같다:



(28)수형도에서 NP₃를 직접 관할하는 첫 번째 분지교점은 PP이고, NP₂를 직접 관할하는 분지교점은 VP이므로 NP₂가 NP₃를 성분통어하고 있다. (20)의 공지시제약은 NP₃가 NP₂와 공지시가 되기 위해서는 NP₃가 반드시 대명사가 되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공지시와 관련될 때 (26)의 문장들은 봉쇄된다.

이상으로 우리는 성분통어 정의와 NP들의 통사적 영역개념을 도입하여 선행-통어관계로 설명 불가능한 독일어 대명사의 의미해석을 분석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단문 내에서 상보적으로 분포되는 인칭대명사와 재귀대명사의 문제를 결속이론에 의거하여 분석·고찰해 보자.

4. 결속이론과 자료분석

4.1 배경

변형문법학자들에 의한 첫 번째 조용사의 의미 및 분포의 분석은 대명사화라는 하나의 변형규칙을 공준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동일성(Identität)의 적절한 조건 하에서 완전명사구 중 하나를 조용사로 바꾸는 것이다. 최초의 변형문법이론에서는 어휘동일에만 의존하고 지시동일에 관해서는 어떤 설명도 없었다. 그 후 표준문법이론에서 의미부를 합친 결과 심층구조의 개념이 명백해졌고 대명사화의 조건은 어휘동일과 지시동일, 즉 엄밀동일이 되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29) Sie werfen die Steine *nacheinander*.

(29)에서 *einander*는 그 전건이 *sie*인가 아니면 *Steine*인가에 따라 그 의미가 결정된다. 이 관계를 나타내는 전통적 방법은 지시지표를 사용하는 것이다. 즉 NP에 지표를 붙여 동일지표를 가지면 공지시관계로, 그렇지 않으면 비공지시관계로 해석된다:

(30) a. Sie_i werden die Steine_j *nacheinander*_i.

b. Sie_i werfen die Steine_j *nacheinander*_j.

그러므로 문장에 등장하는 모든 NP에 적절한 지표를 할당해서 공지시관계의 유무를 나타낼 일종의 의미해석규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⁹⁾

(31) 지표할당규칙

임의의 문장에 나타나는 모든 NP는 지시지표를 할당받는다.

(지표는 임의의 자연수나 글자로 나타낸다)

그러나 문장 내의 모든 NP에 임의의 지표를 붙일 경우 그릇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미여과장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¹⁰⁾

(32) 통사자질 일치조건

2개의 NP에 동일한 지표가 할당될 경우 이 NP들은 통사자질

(수, 성, 인칭)이 일치되어야 한다.

Chomsky는 NP의 유형을 다음 3개로 분류한다; (1) 조응사(Anapher):

9) Radford. A.(1981): Transformational Syntax, S. 364.

10) Radford. A.(1983): ebenda, S. 366.

독자적인 지시체를 가질 수 없고 반드시 어떤 다른 표현, 즉 자기의 전건과 공지시관계에 있는 NP이며 재귀대명사와 상호대명사를 말한다. (2) 대명사(Pronomen): 인칭대명사를 말하며 조용용법과 지시용법을 갖는다. (3) 어휘명사구(lexikalische NP): 대명사가 아닌 보통 어휘적 명사를 말한다.

이제 인칭대명사와 재귀대명사의 상보적 분포가 나타나는 예문을 보자:

- (33) a. Das Dienstmädchen läßt mich *ihr/sich* helfen.
 b. Hans hörte Marias Beschreibung von *ihm/sich*.

(33) 문장의 이탤릭체 조용사들은 본 문장에서 가능한가 어떤가, 만일 가능하다면 각각의 조용사는 어떤 의미해석을 갖는가를 결속이론에 의거하여 고찰하자.

4.2 결속이론

Chomsky는 결속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¹¹⁾

- (34) 결속조건('Binding' Kondition = BK)
 (A) 재귀대명사는 자기의 지배범주 안에서 결속되어야 한다
 (B) 인칭대명사는 자기의 지배범주 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C) 어휘명사구는 도처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34)의 결속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설명이 필요하다: (i) 논항은 S나 복합NP 안에 있는 NP이다. (ii) X를 관할하는 첫 번째 교점이 Y를 관할하고, X와 Y가 서로를 관할하지 않을 경우 X는 Y를 성분통어한다. (iii) X가 Y를 지배하는 성분을 포함한 최소의 S나 NP라면 X는 Y의 지배범주이다. (iv) X가 Y를 성분통어하는 최소의 지배자이고¹²⁾, 또 X와 Y사

11) Chomsky. N.(1982): Some Concepts and Consequences of the Theory of Government and Binding, S. 20

이에 S나 NP장벽이 개입되지 않으면 X는 Y를 지배한다.

이제 결속의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¹³⁾

(35) 결속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 A는 B에 의해 결속된다:

- (i) A와 B는 동일한 지표를 갖는다.
- (ii) B는 A를 성분통어한다.
- (iii) B는 논항위치에 들어 있다.

(35)의 내용은 A가 자기를 성분통어하는 B와 동일지표를 가진 논항이라면 A는 B에 결속되어 그와 공지시관계를 가지며, 결속되지 않으면 자유로워서 그와 공지시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진술을 토대로 (35)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BK(A): 재귀대명사 자기의 최소 '지배범주'가 있다면 그 안에서 반드시 자기의 전건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문장은 의미상으로 비문법적이다.

BK(B): 인칭대명사 자기의 최소 '지배범주' 안에서 자기의 전건을 가져서는 안된다. 지배범주 밖에서 자기의 전건을 찾아야 한다.

BK(C): 어휘명사구는 어디서나 결속되지 않고 자유롭다. 즉 문장 내에서 어떤 NP도 자기의 전건이 될 수 없다.

4.3 자료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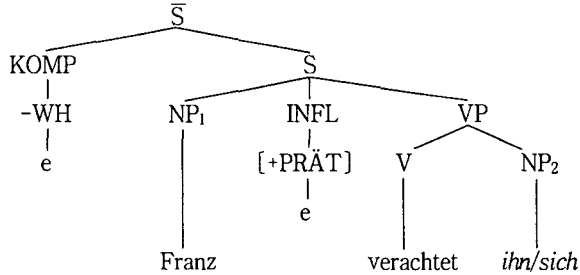
이제 (34)와 (35)에서 진술된 조건을 가지고 다음에 제시되는 문장의 조응사 의미를 분석해 보자.

12) 지배자는 V(동사), P(전치사), A(형용사), N(명사), 그리고 시제자질을 갖는 형태소이다.

13) Chomsky. N.(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S. 184-5.

먼저 S를 최소 지배범주로 취하는 자료부터 고찰하자.

(36) Franz verachtet ihn/si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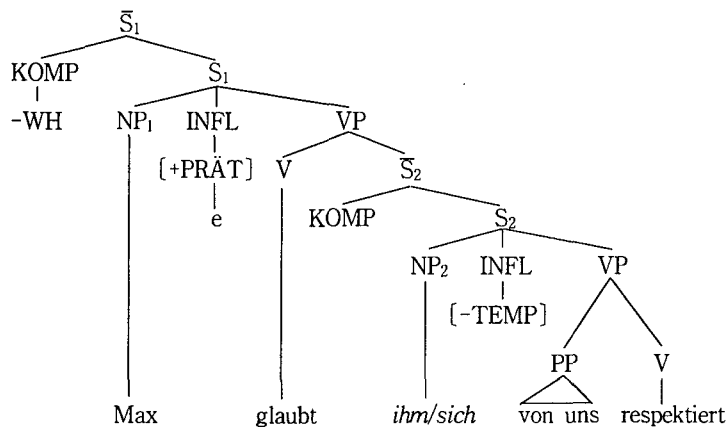


NP2는 V에 의해 지배되며 V를 포함하는 최소 S나 NP는 S이다. 그러므로 S가 NP2에 대한 지배범주가 된다. NP2가 *ihn*으로 채워진다고 가정하자. BK(A)는 「재귀대명사는 S 내에서 자기를 성분통어하는 동일지표의 전건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명히 NP1은 NP2를 성분통어하므로 *sich*가 *Franz*에 결속되어야, 즉 *Franz*와 동일지표를 가져야만 그 결과구조가 BK(A)를 충족시켜 정형문장이 되고, *sich*가 *Franz*와 다른 지표를 갖게 되면 부적절하게 결속되어 BK(A)를 위배하므로 *sich*를 해석할 방법이 없다. 반면에 NP2가 *ihn*으로 채워진다면 BK(B)에 의해 *ihn*은 *Franz*와 동일지표를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BK(B)는 「인칭대명사는 자기의 지배범주 안에서 자기를 성분통어하는 NP와 동일지표를 가질 수 없다, 즉 S 안의 어떤 NP에도 결속되지 않고 자유롭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ihn*은 자기의 전건을 S 밖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36)에 등장하는 조용사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36)' a. Franz_i verachtet sich_i. b. Franz_i verachtet ihn_j.

이번에는 “예외격부여동사”가 등장하는 문장의 예를 보자:14)

14) 예외격부여동사(ECM-Verb)란 S를 삭제시킬 수 있는 동사로서 lassen, fühlen, sehen, glauben, hören, finden, helfen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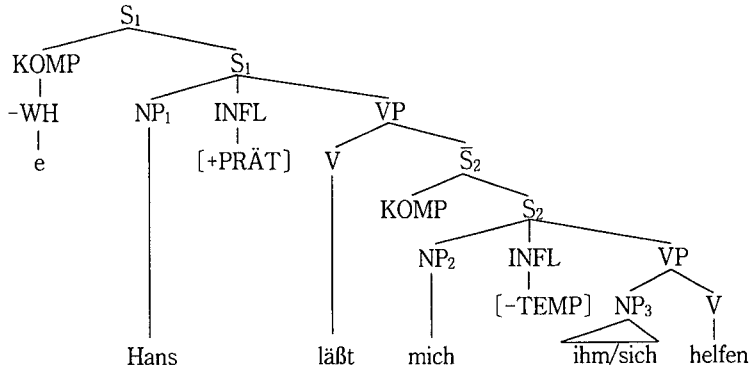
(37) Max glaubt *ihm/sich* von uns respektiert.

NP₂는 *glauben*에 지배되고 *glauben*이 포함된 최소의 S나 NP는 S_1 이므로 S_1 이 NP₂의 최소지배범주이다. 이제 NP₂에 *ihm*이 채워질 경우 BK(B)에 의해 *ihm*은 S_1 의 어떤 NP에 의해서도 결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ihm*은 자기의 지배범주 밖에서 자기의 전건을 찾아야 되므로 *ihm*은 *Max*와 공지시가 될 수 없다. 반면에 NP₂에 *sich*가 채워질 경우 BK(A)에 의해 *sich*는 S_1 속에서 자기를 성분통어하는 전건인 *Max*를 찾게 된다. 따라서 (37)문장의 조응사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37)' a. Max_i glaubt ihm_j von uns respektiert.b. Max_i glaubt sich_i von uns respektiert.

이번에도 ECM-동사가 등장하는 다음의 예문을 보자:

(38) Hans läßt mich *ihm/sich* helfen.



NP₃를 지배하는 것은 *helfen*이고 *helfen*이 포함된 최소의 S나 NP는 S₂이므로 NP₃의 지배범주는 S₂이다. NP₃에 *sich*를 사용할 경우 BK(A)가 적용되므로 S₂ 안에서 *sich*는 자기를 성분통어하는 NP를 전건으로 가져야 하는데 그런 NP가 없으므로 -물론 S₂ 안에 *sich*를 성분통어하는 NP로서 *mich*가 있지만 (32)의 ‘통사자질일치조건 (Matching Condition)’에 의해 *mich*는 배제된다- *sich*는 해석할 방법이 없다. *ihm*을 사용할 경우 BK(B)에 의해 *ihm*은 S₂ 밖에서 자기를 성분통어하는 NP와 동일지표를 가질 수 있는데 S₁의 Hans가 이 NP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39)문장의 조용사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 (38)' a. Hans_i läßt mich ihm_i helfen.
- b. *Hans_i läßt mich sich_i helfen.

이번에는 PRO(공범주대명사)가 등장하는 문장의 조용사 의미를 분석·고찰해 보자. Chomsky의 통제이론(‘Control theory’)은 PRO가 부정사절의 주어로서 실제로 무엇을 지시하는가, 즉 PRO의 전건이 무엇인가를 정의한다. 그에 의하면 PRO는 주절 술어의 어휘자질을 할당받는다. 즉 PRO는 주절 술어의 어휘기재부에서 지시하는 통제자질에 따라 지표를 할당받으며 추상적이긴 하지만 고유의 인칭, 성, 수를 가진다.¹⁵⁾

이제 다음의 예문을 보자:

(39) Hans bittet Anna, *ihn/sich* heute abend zu besuchen.

(39) 문장의 주술어인 *bitten*의 통제자질은 [Pa-Anna]를 지시한다. 따라서 PRO는 *Anna*의 지표를 가져야 한다. (39)의 약식구조는 다음과 같다:

(40) [_S Hans bittet Anna₂ [_{So} PRO₂ *ihn/sich* heute abend zu besuchen]]

(40)에서 *sich*를 사용할 경우 BK(A)에 의해 [So] 안에서 자기를 성분통어하는 NP와 동일지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NP가 없다. -물론 추상적인 PRO가 있기는 하지만 PRO는 *Anna*와 공지시이므로 '통사자질조건'에 위배된다- 따라서 *sich*는 해석할 방법이 없어 *sich*를 사용할 경우 그 문장은 비문법적이 된다. 반면에 *ihn*을 사용할 경우 BK(B)에 의해 *ihn*은 자기의 지배범주인 [So] 밖에서 자기를 성분통어하는 NP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S]의 *Hans*가 이 NP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Hans*와 *ihn*이 동일지표를 할당받았다면 (39)문장의 의미해석은 다음과 같다:

- (39)' a. Hans_i bittet Anna, ihn_i heute abend zu besuchen
 b. *Hans_i bittet Anna, sich_i heute abend zu besuchen.

이번에도 (39)과 마찬가지로 동일명사구-삭제규칙에 의해 유도된 다음 문장의 조응사 의미를 분석하자:

(41) Franz wünscht, *ihn/sich* zu waschen.

PRO에 대한 지표할당규칙에 의해¹⁵⁾ 주절 술어 *wünschen*의 통제자질은 [Agent Franz]를 지시하므로 PRO는 Franz와 동일지표를 가져야 한다. (41)의 약식구조는 (42)과 같다:

15) Chomsky. N.(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S. 74-78.

16) Pro는 주절 술어의 어휘기재부에서 지시하는 통제자질에 따라 지표를 할당받는다.

(42) [_S Franz₂ wünscht [_{So} PRO₂ *ihn/sich* zu waschen]]

(42)에서 *sich*를 사용할 경우 그것을 지배하는 것은 *waschen*이고 *waschen*이 포함된 최소의 S나 NP는 [So] 이므로 *sich*의 지배범주는 [So] 이다. BK(A)에 의해 *sich*는 이 범주 안에서 자기를 성분통어하는 NP와 동일지표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PRO이며 PRO는 *Franz*와 동일하므로 *sich*는 *Hans*와 공지시관계를 갖는다. 반면에 *ihn*을 사용할 경우 *ihn*은 BK(B)에 의해 [So] 밖에서 자기를 성분통어하는 NP와 공지표가 되어야 하는데 *Franz*는 이미 PRO와 공지표를 갖고 있으므로 *ihn*은 *Franz*와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41)의 조용사와 전건의 지표관계는 다음과 같다:

- (41)' a. Franz_i wünscht, ihn_j zu waschen.
b. Franz_i wünscht, sich_i zu waschen.

이번에는 흔적(Spur)이 등장하는 문장의 조용사 의미를 분석해 보자. 이를 위해 다음의 약정을 도입한다:¹⁷⁾

(43) 흔적약정

X^N 타입의 이동범주는 자기가 빠져나온 위치에 자기와 동일한 지표를 지닌 (X^N e)의 0교점흔적을 남긴다.

흔적도 대명사의 전건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가정한다.¹⁸⁾ 이제 다음의 예문을 보자:

(44) Gregor scheint *ihn/sich* mißhandelt zu haben.

(44)문장은 다음의 심층구조에서 유도되었을 것이다:

17) Chomsky. N.(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S. 56.

18) Chomsky. N.(1982): Some Concepts and Consequences of the Theory of Government and Binding, S. 30-32

- (45) [_S np scheint [_{So} Gregor ihn/sich mißhandelt zu haben]
 → [_S Gregor₂ scheint [_{So} (np_{2e}) ihn/sich mißhandelt zu hab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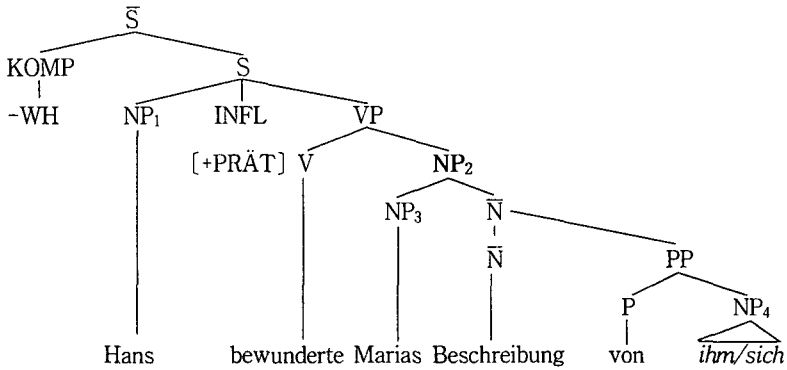
(45)의 약식구조는 *scheinen*이 상승(Hebung)을 허용하는 동사이므로 본래 부문장 [So]에 있던 *Gregor*가 주문장의 비어있던 주어위치 *np*로 올라오면서 본래의 자기 자리에 추상적인 흔적(np_{2e})을 남긴 구조이다. 이제 *ihn/sich*의 지배범주는 [So]이다. *sich*를 사용할 경우 BK(A)에 의해 (np_{2e})와 동일지표를 갖게되어 *Gregor*와 동일인이 되고 *ihn*을 사용할 경우 BK(B)에 의해 (np_{2e})와 동일지표가 될 수 없으므로 *ihn*은 *Gregor*와 무관하다. 따라서 (44)의 조응사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 (44)' a. *Gregor_i scheint ihn_i mißhandelt zu haben.*
 b. *Gregor_i scheint sich_i mißhandelt zu haben.*

지금까지 S가 지배범주가 되는 문장의 조응사의미를 분석하였다. 이제부터 지배범주가 NP인 문장의 예문에 등장하는 조응사의 의미해석을 고찰하자.

다음의 예문과 수형도를 보자:

- (46) Hans bewunderte Marias Beschreibung von ihm/si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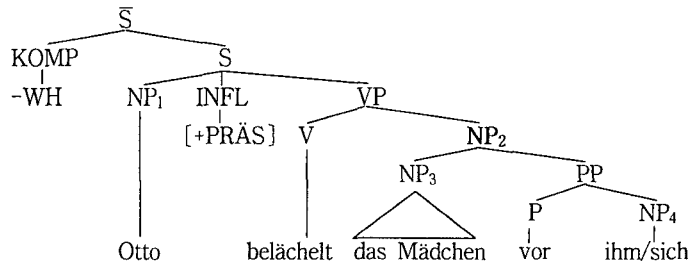


*ihm/sich*는 *von*의 지배를 받고 *von*이 포함된 최소의 S나 NP는 NP₂이다. 그러므로 NP₂가 *ihm/sich*의 지배범주이다. *sich*는 BK(A)에 의해 NP₂ 안에서 자기를 성분통어하는 NP와 동일지표가 되어야 하는데 *Maria*가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에 *ihm*은 BK(B)에 의해서 NP₂ 밖에서 자기를 성분통어하는 NP와 동일지표를 가질 수 있는데 *Hans*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46)의 조용사 의미해석은 다음과 같다:

- (46)' a. Hans_i bewunderte Marias Beschreibung von ihm_i;
- b. Hans bewunderte Marias_i Beschreibung von sich_i.

이번에는 (46)과 상이한 구조를 지닌 문장의 조용사 의미를 분석하자. 다음의 예문과 수형도를 보자:

(47) Otto belächelt das Mädchen vor ihm/si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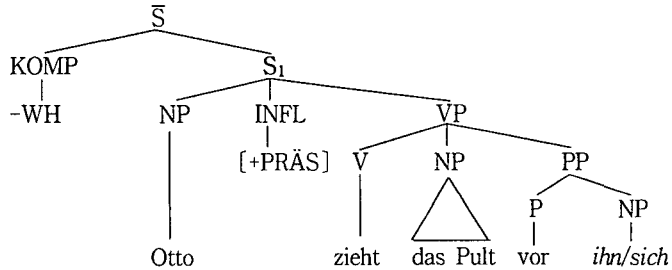


*ihm/sich*는 *vor*의 지배를 받고 *vor*를 포함하는 최소의 S나 NP는 NP₂이므로 NP₂가 *ihm/sich*의 지배범주이다. *sich*를 사용할 경우 BK(A)에 의해 *sich*는 자기의 지배범주 안에서 자기를 성분통어하는 전건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das Mädchen*이다. 그러나 *sich*는 *das Mädchen*과 의미상으로 동일인이 될 수 없으므로 *sich*는 해석할 방법이 없다. *ihm*을 사용할 경우 BK(B)에 의해서 *ihm*은 NP₂ 밖에서 자기를 성분통어하는 NP를 찾아야 하는데 *Otto*가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47)의 조용사 해석은 다음과 같다:

- (47)' a. *Otto_i belächelt das Mädchen vor ihm_i.*
 b. **Otto_i belächelt das Mädchen vor sich_i*
 c. **Otto belächelt das Mädchen_i vor sich_i*

이번에는 표층구조상 (47)과 유사한 문장에 등장하는 조용사의 의미를 분석하자. 다음의 문장과 수형도를 보자:

- (48) *Otto zieht das Pult vor ihm/si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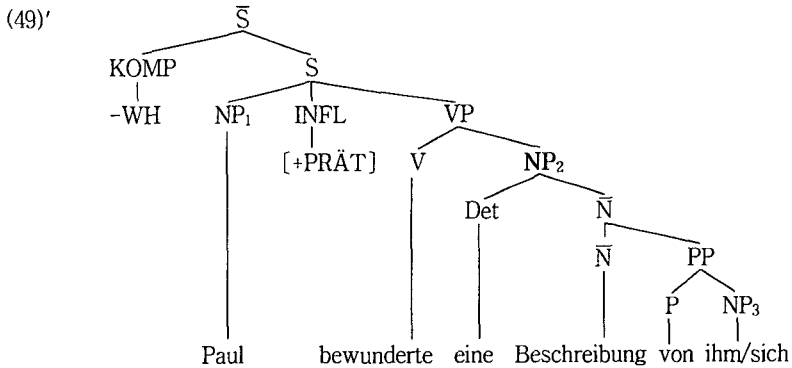
(48)의 기저구조는 (47)의 기저구조와 다르다. *ihm/sich*는 전치사 *vor*의 지배를 받고 *vor*가 포함된 최소의 지배범주는 (47)과는 달리 NP가 아니라 S_1 이다. *sich*를 사용할 경우 S_1 안에서 *sich*는 자기를 성분통어하는 NP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Otto*이다. *ihm*은 BK(B)에 의해 S_1 밖에서 자기를 성분통어하는 전건을 찾아야 하므로 *Otto*와 동일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48)의 조용사 의미해석은 다음과 같다:

- (48)' a. *Otto_i zieht das Pult vor sich_i.*
 b. *Otto_i zieht das Pult vor ihm_j*

이번에는 Chomsky의 BK(A)와 BK(B)로 해결할 수 없는 자료를 검토하자:

- (49) a. *Paul_i bewunderte eine Beschreibung von sich_i (selbst).*
 b. **Paul_i bewunderte eine Beschreibung von ihm_j.*
 (50) a. *Paul_i liest ein Buch über sich_i (selbst).*
 b. **Paul_i liest ein Buch über ihn_j.*

(49) 문장의 기저구조를 수형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9)'에서 *ihm/sich*는 *von*에 지배되고 *von*이 포함된 최소의 S나 NP는 NP_2 이므로 *ihm/sich*의 지배범주는 NP_2 이다. *sich*를 사용할 경우 BK(A)에 의해 지배범주 NP_2 에서 자기를 성분통어하는 전건을 찾아야 하는데 *Beschreibung*은 '통사자질 일치조건'에 위배되므로 *sich*는 해석할 길이 없다. 따라서 (49a) 문장은 비문법적이 되어야 할텐데 그 결과는 (49a)와 (50a)가 보여주듯이 정형 문장이다. 반면에 *ihm*은 BK(B)에 의해 NP_2 밖에서 자기를 성분통어하는 *Paul*을 전건으로 가질 수 있는데 그 결과는 *ihm*과 *Paul*이 공지시가 되면 (49b)와 (50b)가 보여주듯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지금까지의 결속이론으로는 조용사 의미를 분석할 방법이 없다.

Harris(1965)는 (49)-(50) 같은 자료를 그림명사구조('picture noun') 분석에 의거하여 해결한다. 그는 「공지시관계에 있는 두 개의 NP 중 한 NP가 복합NP 안에 있을 때 재귀대명사화변형은 적용되지 않으나 그림명사와 함께 나타날 때는 적용된다」는 결론을 많은 자료에서 얻었다. 그림명사는 다

음의 구조에서 전건-조용사(재귀대명사)관계를 허용하는 명사를 말한다:19)

$$(51) \text{NP}_i \text{ V } [\text{NP X} - \text{N}_x - [\text{P} - \text{NP}_i]]$$

전건
조용사

(여기에서 N_x 는 그림명사이고, X는 부정관사 아니면 전건과 일치하는 소유대명사이다)

이런 특성을 보이는 그림명사는 (i) 동사형이 있는 것 (예: Beschreibung, Kritik, Überredung, Analyse, Erlaubnis 등)과 동사형이 없는 것 (예: Buch, Bild, Brief, Idee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지적, 창조적, 감각적 활동을 갖는 것이다.

(49)과 (50) 예문은 (52)과 (53)에서 유도된 것이다. 이들을 (54)과 (55) 예문과 비교해 보자:

(52) *Paul_i bewunderte, daß jemand ihm_i beschrieb.*

→ *Paul_i hörte eine Beschreibung von sich_i/*ihm_i.*

(53) *Paul_i liest, ein Buch, das (irgend)einer über ihm_i schrieb.*

→ *Paul_i liest ein Buch über sich_i/*ihm_i.*

(54) *Paul_i bewunderte, daß der Dichter ihm_i beschrieb.*

→ *Paul_i bewunderte des Dichters Beschreibung von ihm_i/*sich_i.*

(55) *Paul_i liest ein Buch, daß Anton über ihm_i schrieb.*

→ *Paul_i liest Antons Buch über ihm_i/*sich_i.*

(52)-(53)와 (54)-(55)의 비교에서 「부문장의 주어가 *jeamnd, einer, man*과 같은 대형식(Proform)이고 그 기저동사가 명사화되면서 주어가 삭제될 때 재귀대명사화는 문장범위를 넘어 가능하며, 동사를 명사화시킬 때 주어가 대형식이 아닌 어휘적 명사여서 주어를 삭제시킬 수 없을 때에는 이런 특수한 재귀화변형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20)

19) Harris.F.W.(1976): "Reflexivization", in: *Syntax and Semantics*, S. 64.

20) Harris.F.W.(1976): ebenda, S. 72.

5. 맺는말

초기 변형문법에서 독일어 복합문에 나타나는 대명사의 의미해석은 Langacker의 “선행-통어” 개념에 의해 대부분 해결되었다. ‘대명사는 자기의 전건보다 앞서면서 동시에 자기의 전건을 통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공지시제약 연구에서 채택된 결과이다. 그러나 선행-통어개념에 의해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예들이 Lakoff(1968)에 의해 관찰되었다. 첫째 역행대명사화의 범위가 이 개념이 예언하는 것보다 넓다는 것이고, 둘째 순행대명사화의 범위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Reinhart(1976, 1983)는 성분통어개념과 명사구간의 영역개념을 도입하였다. 특히 이 개념에 의해 선행-통어로는 설명 불가능한 대명사 의미현상이 일일이 특수한 제약을 가하지 않고서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표층구조상 접속사가 나타나지 않는 단문에서 상보적으로 분포하는 인칭대명사와 재귀대명사의 문제를 Chomsky의 최종모델(1976)에서 의미론역할을 담당하는 결속이론에 의거하여 분석·고찰하였다. 특히 이 이론은 종전의 재귀대명사화변형과 인칭대명사화변형의 별도 분석을 보편타당성 있게 합쳐놓았을 뿐 아니라 통사론의 문제까지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어의 3인칭 재귀대명사는 모두 *sich*로 실현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sich*의 의미해석은 애매하다:

(56) Gregor hat Inge einen Bericht über *sich*.

(56)에서 *sich*가 Gregor와 동일인으로, 아니면 Inge와 동일인으로 해석할 것인가는 성분통어개념이나 결속조건으로는 분석할 방법이 없다. 이런 종류의 자료와 ‘그림 명사’의 경우에 입각할 때 독일어 조용사의 의미해석을 위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Noam Chomsky(1982): Some Concepts and Consequences of the Theory

- of Government and Binding. The MIT Press
- Noam Chomsky(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Publications
- Reinhart. T(1976): "Definite NP Anaphora and C-Command", in: Linguistic Inquiry, Vol. 12, MIT Press
- Reinhart. T(1983): Anaphora and Semantic Interpret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oames/Perlmutter(1979): Syntactic Argumentation and the Structure of English,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eorge Lakoff(1974): "Pronouns and Reference", in: Syntax and Semantics, Vol. 7, Academic Press
- Huber/Kummer(1974): Transformationelle Syntax des Deutschen 1, Wilhelm Fink Verlag München
- Andrew Radford(1981):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ngacker.R.W.(1969): "Pronominalisierung and the Chain of Command", in: Modern Studies in English, Reibel and Shane.
- Harris.F.W.(1976): "Reflexivization", in: McCawley, Academic Press

Zusammenfassung

Studie zur semantischen Interpretation der Anaphern

Lee, Wan-ill(Sunchunhyang Univ.)

Ziel dieser Arbeit ist es, die Probleme der semantischen Interpretationen der heutigen deutschen Anaphern im oberflächenstrukturell einfachen Satz mit Hilfe von Langackers "C-Command" und Chomskys "Government and Binding Theorie" zu lösen.

Bis Anfang der 70er Jahren wurden die koreferentiellen Erscheinungen zwischen NPs meist durch den von Langacker eingeführten "precede and command" Begriff gelöst. Aber dieser Begriff ist höchst abiträr auf theoretischen Gründen und empirisch inadäquat. Reinhart versuchte, einige Schwierigkeiten mit Bezug auf Koreferenz-Beziehungen zwischen NPs zu lösen, indem er *command* durch

c-command ersetzt. Mit Hilfe von "*c-command*"-Relationen werden manche Probleme, die bisher theoretisch nicht erklärt werden konnten, befriedigend gelöst.

Chomsky schlägt "Binding Conditions" vor, um die semantischen Interpretationen der Anaphern im einfachen Satz zu behandeln. Die von ihm vorgeschlagenen 3 Bedingungen sind: (i) Eine Anapher muß in ihrer "governing" Kategorie gebunden sein, (ii) Eine pronominale NP muß in ihrer "governing" Kategorie frei sein, (iii) Eine lexikalische NP muß überall frei sein. Dabei versteht man Anapher unter Reflexivpronomen, die pronominale NP unter Personalpronomen, und die lexikalische NP unter Referenz-Ausdruck. Aber in der vorliegenden Arbeit fassen ein Reflexivpronomen und ein Personalpronomen zu einer Anapher zusammen. Aufgrund der "Binding Conditions" werden viele Fragen der semantischen Interpretationen, vor allem der komplementären Verteilungen von den im einfachen Satz erscheinenden Anaphern erschlossen.